

코레일 5개 자회사, 3개사로 통합

-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「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」이 6월 30일 오후 5시에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코레일 자회사는 기존 5개사(코레일유통, 코레일관광개발, 코레일네트웍스, 코레일로지스, 코레일테크)에서 ▲고객서비스(코레일관광개발, 코레일네트웍스) ▲유통·물류(코레일유통, 코레일로지스) ▲유지관리(코레일테크) 전문 3개사로 개편을 추진한다.
 - 이번 통합으로 ①고객서비스(역무-승무-관광) 창구 일원화, ②철도 중심의 공공유통·물류망 구축 ③시설, 차량 등 유지관리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철도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철도안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철도공사(이하 코레일), 5개 자회사, 연구기관(한국교통연구원),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9차례 회의를 통해 자회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.
 -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각 자회사 노조 릴레이 면담(2.19~3.17)을 실시하는 한편, 코레일 및 자회사 노사,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‘노사정 협의체’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도 개최하였다.
 - TF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효율성 평가를 거쳐 최종방안을 도출하였다.

- 국토교통부, 코레일 및 각 자회사는 행정절차를 거쳐 기관통합을 완료한 이후, 통합 자회사를 중심으로 세부업무 및 기능조정을 추진하여 중복 업무는 연계·통합하고, 고객 편의와 무관한 사업들은 재구조화하는 등 각 자회사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- 통합 이후에도 ‘노사정협의체’를 계속 운영하여, 자회사 직원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자회사 통합은 기관 간 물리적인 결합과 비용 절감을 넘어, 국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- 통합방안이 고용승계를 바탕으로 자회사 직원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공공혁신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동진 (044-215-5610)
		담당자	주무관	우성화 (044-215-5516)
	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철 (044-201-4774)
		담당자	주무관	김돈희 (044-201-4634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